

제주도방언의 접두사

강 영 봉*

목 차

1. 서 언
2. 접두사 목록
3. 접두사 의미
4. 맺음말

1. 서 언

이 글은 제주도방언의 접두사 목록 작성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다.

접두사란 어근이나 어간 앞에 위치하여 어간·어근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접사다. 가의적 기능으로 오로지 한정적 역할만 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는 지배적 접사의 기능과는 다른 점이 있다.

접두사를 다루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합성어인가 파생어인가 하는 구별에 어려움이 있고, 관형사인가 접두사인가 하는 구분도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논외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되는 목록은 파생어의 입장에 선 결과다.

의미 분석에 있어서도 표준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면 제외하였다. 가끔

* 국어국문학과 교수

적 어원적 근거를 밝히려 노력했다.

(이 글에서 사용된 문장 부호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쓴다. 곧 ' '는 표준어와 의미 내용 설명용, < >은 제주도방언형을, ()는 형태 또는 형태소를 나타낸다.)

2. 접두사 목록

제주도방언에 쓰이는 접두사 목록은 다음과 같이 133개가 있다. 이 목록은 서병국¹⁾과 기주연²⁾의 논의에 따른 결과다. 기주연(1994)이 제시하는 접두사 설정기준은, ① 의존성 ② 어기의 자립성 ③ 분리성 ④ 후속어의 제약성 ⑤ 대처가능성 ⑥ 접미사 연결 가능성 ⑦ 의미의 변화성을 들고 있다. 이 기준을 준용한다.

- [1] 갈-³⁾ : 갈웃 갈독지 갈적삼 갈중의/갈가마귀 · 갈저미
- [2] 감장- : 감장들다
- [3] 강- : 강추위
- [4] 개- : 개비눔 개썰피낭 개엿귀
- [5] 전- : 전밀다/전트집
- [6] 전들- : 전들마 전들복름
- [7] 겁- : 겁비
- [8] 걸- : 걸꼭석 걸보리/걸할기
- [9] 고레- : 고레장비 고레비
- [10] 관- : 관췌 관년
- [11] 구석- : 구석당장 구석비치
- [12] 군- : 군내 군물
- [13] 굴분⁴⁾- : 굴분말 굴분소리 굴분음식

-
- 1) 서병국(1974), 《현대국어의 어구성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pp. 49~51.
 - 2) 기주연(1994), 《근대국어 조어론 연구(1)》, 태학사, pp. 29~37.
 - 3) / (빋금) 왼쪽은 제주도방언에서의 접두사를, 오른쪽은 표준어에서의 접두사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접두사의 의미가 다른 데서 연유한다. 이하 같은 뜻으로 쓴다.
 - 4) 표준어 {군-}에 해당한다.

- [14] ㄹ랑- : ㄹ랑중의 ㄹ랑니
- [15] 꺾- : 꺾점은조 꺾버랭이
- [16] 광- : 광배
- [17] 나- : 나돋다
- [18] 나박- : 나박집치
- [19] 난- : 난드르 난캐
- [20] 내- : 내조치다 내돋다 내던지다
- [21] 녃- : 녃할망 녃하르방
- [22] 늣- : 늣뒤다 늣더워
- [23] ㄴ단⁵⁾- : ㄴ단발 ㄴ단착
- [24] ㄴ리⁶⁾- : ㄴ리스랑
- [25] 놀⁷⁾- : 놀땅 놀혹/놀깨기
- [26] 다슴- : 다슴애기 다슴줄 다슴어멍
- [27] 단- : 단아돌 단짚
- [28] 땃- : 땃득
- [29] 덜⁸⁾- : 덜솟다 덜익다
- [30] 덧- : 덧뇌 덧돋다
- [31] 도- : 도나다 도치다
- [32] 돌- : 돌배 돌가시낭 돌캉낭
- [33] 돌래⁹⁾- : 돌래떡 돌래방석
- [34] 뚏- : 뚏자라 뚏거미
- [35] 동공- : 동공아돌 동공줄
- [36] 뒤¹⁰⁾- : 뒤살다
- [37] 뒤- : 뒤집다 뒤풍치다
- [38] 드룻- : 드룻마눔 드룻버들
- [39] 든- : 든캐
- [40] 땅- : 땅개

- 5) 표준어 {오른-}에 해당한다.
- 6) 표준어 {내리-}에 해당한다.
- 7) 표준어 {날-}에 해당한다.
- 8) 표준어 {설-}에 해당한다.
- 9) 표준어 {도래-}에 해당한다.
- 10) 표준어 {뒤-}에 해당한다.

- (41) 통- : 통갱이
 (42) 뜬- : 뜬쇄
 뜬혹 뜬밭
 (43) 마- : 마꼭름
 (44) 막- : 막둥이
 (45) 말жат- : 말жат아들 말жат어멍
 (46) 맞- : 맞돈 맞전
 (47) 매- : 매마르다
 (48) 먹- : 먹들 먹장의 먹보말
 (49) 멘¹¹⁾- : 멘주먹 멘손 멘물
 (50) 모지락¹²⁾- : 모지락비
 (51) 모힌¹³⁾- : 모힌조 모힌살
 (52) 목- : 목돈
 (53) 몸- : 몸살
 (54) 몽근¹⁴⁾- : 몽근비 몽근붓
 (55) 물- : 물엿 물떡 물왓/물고기 물방울
 (56) 민- : 민오름
 (57) 민둥- : 민둥대가리
 (58) 물¹⁵⁾- : 물계염지
 (59) 부름- : 부름뜨다
 (60) 불- : 불더위/불개미
 (61) 비- : 비웃다
 (62) 샷- : 샷갓 샷자리
 (63) 새- : 새각씨 새서방 새감 새감저
 (64) 셋- : 셋서방 셋길
 (65) 생(생)- : 생부롱이/생수 생트집
 (66) 생이- : 생이빨망
 (67) 선- : 선떡 선하우염

- 11) 표준어 {멘-}에 해당한다.
 12) 표준어 {모자랑-}에 해당한다.
 13) 표준어 {메-}에 해당한다.
 4) 표준어 {몽당-}에 해당한다.
 15) 표준어 {말-}에 해당한다.

- [68] 설- : 설배/설늪은이
- [69] 섭- : 섭쟁이 섭늪물
- [70] 세양¹⁶⁾- : 세양쥐
- [71] 색동¹⁷⁾- : 색동옷
- [72] 셋- : 셋아방 셋어멍 셋아돌 셋상제
- [73] 속- : 속들
- [74] 수- : 수캐 수뿔
- [75] 숙- : 숙새
- [76] 시- : 시커멀다 시퍼렇다
- [77] 식- : 식새
- [78] 신- : 신새 신어럭새
- [79] 실- : 실거리냥 실꺾매기
- [80] 속- : 속뚝
- [81] 췌- : 췌군뱃
- [82] 아끈- : 아끈췌기 아끈내 아끈다랑쉬
- [83] 알- : 알맞다
- [84] 암- : 암새 암캐 암쟁
- [85] 알- : 알밋다
- [86] 얼- : 얼광대
- [87] 엄- : 엄지
- [88] 엇- : 엇디되다 엇맞다
- [89] 여시¹⁸⁾- : 여시비
- [90] 열- : 열무
- [91] 옛아(옛)¹⁹⁾- : 옛아보다
- [92] 온- : 온종일 온통
- [93] 왕- : 왕돌 왕방울 왕재열
- [94] 옷- : 옷드르 옷웃
- [95] 췌²⁰⁾- : 췌거리 췌가닥

-
- 16) 표준어 {세양-}에 해당한다.
 - 17) 표준어 {색동-}에 해당한다.
 - 18) 표준어 {여우-}에 해당한다.
 - 19) 표준어 {옛-}에 해당한다.
 - 20) 표준어 {외-}에 해당한다.

- [96] 의(에)²¹⁾- : 의새끼
- [97] 이른- : 이른콩 이른나루
- [98] 장- : 장뽕 장득
- [99] 첫²²⁾- : 첫갈리 첫간
- [100] 정- : 정말
- [101] 조- : 조쿠쟁이 조우럭
- [102] 조락²³⁾- : 조락바구리
- [103] 조랑- : 조랑내 조랑말
- [104] 줌- : 줌뽕
- [105] 줄- : 줄삼치
- [106] 지- : 지아비 지어미
- [107] 진- : 진펄
- [108] 질- : 질왓
- [109] 짓- : 짓거리
- [110] 존²⁴⁾- : 존소리 존배설
- [111] 좇- : 좇도새기
- [112] 처- : 처먹다 처메다
- [113] 첫- : 첫눈 첫새끼
- [114] 치- : 치받다 치밀다
- [115] 츄²⁵⁾- : 츄나루
- [116] 춘²⁶⁾- : 춘혹
- [117] 출²⁷⁾- : 출떡
- [118] 춤²⁸⁾- : 춤지름 춤말
- [119] 푼- : 푼돈
- [120] 풀²⁹⁾- : 풀고치 풀감

- 21) 표준어 {어이-}에 해당한다.
- 22) 표준어 {결-}에 해당한다.
- 23) 표준어 {종-}에 해당한다.
- 24) 표준어 {잔-}에 해당한다.
- 25) 표준어 {차-}에 해당한다.
- 26) 표준어 {찰-}에 해당한다.
- 27) 표준어 {찰-}에 해당한다.
- 28) 표준어 {참-}에 해당한다.
- 29) 표준어 {뚫-}에 해당한다.

- (121) 풋- : 풋감 풋재열
- (122) 봉- : 봉치매
- (123) 한- : 한질 한가운디
- (124) 할- : 할으비 할망
- (125) 핫- : 핫아방 핫이불
- (126) 헛- : 헛일 헛노릇
- (127) 헛- : 헛송애기 헛아이
- (128) 흘- : 흘아방 흘어멍
- (129) 흘- : 흘이불 흘웃
- (130) 황- : 황쇄 황돔
- (131) 휘- : 휘감다 휘날리다
- (132) 흐린³⁰⁾- : 흐린조
- (133) 힌- : 힌떡

이 가운데 [6] 건들- [7] 겁- [8] 걸- [9] 고래- [11] 구석- [16] 땅- [34] 돛- [38] 드룻- [48] 먹- [60] 불- [66] 생이- [69] 섭- [77] 식- [79] 실- [120] 플- 등은 자립성이 강하여 의존성이라는 접두사 설정 기준에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보다는 변화된 의미라든가 아니면 유추되어 연이어 따르는 어기·어근에 가의적 기능을 하고 있다. 어찌보면 어휘형태소에서 문법형태소로 건너가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고나 할까. 독립된 자립성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9]의 {고래-}인 경우 <고래장비>라 했을 때 '고래가 만든 비' '고래가 내뿜는 비'·'고래가 맞는 비'라는 뜻은 아니다. '고래'의 속성인 '크다'를 연상하고 붙여진 곳, 전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들도 접두사로 처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1] 모힌- [132] 흐린-은 각각 {매-}와 {차-}에 대응하는 방언형들이다. {매-}·{차-}가 <모히다>·<흐리다>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면 방언형인 이들도 접두사로 처리할 도리밖에는 없다.

[19] 난- [39] 든- [42] 뜬- 들은 각각 '나다·들다·뜨다'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어 한정적 접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29]덜-은 {설-}에

30) 표준어 {차-}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방언형으로, [27]단-은 한자어 單에 어원적 근거를 두고 있어 접두사로 분류했다.

[26]다슴-은 표준어로 대역하면 '의붓'에 해당될 것이나, 근대국어로 저슬러 올라갈 때 접두사였기에 여기서도 접두사로 처리한다.

3. 접두사 의미

접두사 의미 분석에서 표준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접두사와 의미는 같되 방언음성형이 다른 접두사는 제외한다. 여기에 속하는 접두사들은 다음과 같다.

[3]강-	[4]개-	[6]건들-	[12]군-	[13]글분-
[14]꺾랑-	[17]나-	[18]나박-	[20]내-	[21]넛-
[22]눅-	[23]느단-	[24]느리-	[27]단-	[29]덜-
[30]덧-	[32]돌-	[33]돌레-	[36]뒹-	[37]뒤-
[38]드룻-	[43]마-	[44]막-	[46]맛-	[47]매-
[49]멘-	[50]모지락	[51]모힌-	[52]목-	[53]몸-
[54]몽근-	[56]민-	[57]민둥-	[58]뭉-	[59]부름-
[61]비-	[62]삿-	[63]새-	[65]생(생)-	[67]선-
[70]세양-	[71]씩동-	[74]수-	[76]시-	[83]알-
[84]암-	[85]얄-	[86]얼-	[87]엄-	[88]엇-
[89]여시-	[90]열	[91]엿아(엿)-	[92]은-	[94]웃-
[95]췌-	[96]의(에)-	[97]이른-	[99]젓-	[100]정-
[102]조락-	[103]조랑-	[104]죵-	[106]지-	[107]진-
[108]질-	[109]깃-	[110]즌-	[112]처-	[113]첫-
[114]치-	[115]츄	[116]촌-	[117]출-	[118]춤-
[119]푼-	[120]풀-	[122]푹-	[123]한-	[124]할-
[125]헛-	[126]헛-	[127]헛-	[128]흠-	[129]흠-
[130]황-	[131]휘-	[132]호린-	[133]힌-	

[1] 갈-/갈웃 갈독지 갈적삼 갈중의

표준어 '갈거미·갈가마귀'에서 {갈-}은 '작다'나 '낮다' 또는 '갈색의'³¹⁾

31) 허용(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p. 142.

뜻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색채에 비중을 두어 '갈색의' 의미가 강하다. <갈웃>을 <감웃>이라고도 하는데, 풋감을 따 즙을 만들어 옷에 먹여 햇빛에 말리면 갈색을 띠게 된다. 감즙을 먹인 '적삼·중의'가 각각 <갈적삼·갈중의>가 되는 것이니, {갈-}의 뜻은 '감즙을 먹인' 또는 '갈색의' 의미로 파악된다.

[2] 감장- / 감장들다

<감장들다>는 표준어 '매암들다'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그렇다면 '감장'은 접두사일 수가 없다.

우리들은 중세어휘에 '감들다'나 '감썰다'가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감아들다>나 <감아빨다>의 뜻으로, '감다'의 의미가 강하다. 의미의 변화성이라는 측면 곧 어원적인 의미가 크게 약화되거나 실사의 의미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조건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의존성·분리성·제약성으로 볼 때는 접두사로 처리해 '감아서·말려서(명서말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고자 한다. 가의성이라는 접두사의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건- / 건밀다

표준어 '건울음'의 {건-}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건밀다>는 '서 있는 사람을 갑자기 때밀다'라는 뜻으로, '갑자기'라는 의미가 더 보태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의 <겁비>의 {겁-}과 같다.

[7] 겁- / 겁비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겁비>라고 하는데, {겁-}에서 '갑자기'라는 의미가 파악된다. '겁(拑)'에 어원적 근거를 두고 있다.

[8] 걸- / 걸곡석 걸보리

'걸잡기'의 {걸-}과는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 '대강'의 뜻과는 달리 '겉질을 벗기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 <걸곡석>·<걸보리>는 '겉질을 벗

기지 않은 곡식, '겉질을 벗기지 않은 보리'가 된다. '겉(皮)'에 어원적 근거를 두고 있다.

[9] 고래- / 고래장비 고래비

〈고래〉는 '고래'의 방언형이다. 그러니 〈고래장비〉·〈고래비〉는 '한정없이 크게 오는 비'를 말하는데, '고래'가 지니고 있는 '크다'에 의지하고 있다.

[10] 관- / 관췌 관년

〈관〉은 〈괄다〉에서 온 접두사다. 〈괄다〉가 '무르지 않다'·'화력이 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니, 〈관췌〉는 '무르지 않은 강한 쇠'라는 뜻이다. '무르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파악된다. 〈관년〉은 '무르지 않은 여자'의 뜻이다.

[11] 구석- / 구석당장 구석바치

〈구석-〉은 '구석'에서 온 접두사로 보인다. 〈구석당장〉이나 〈구석바치〉는 '밖에 나다니지 않고 집에만 들어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뜻이다. '밖에 잘 나다니지 않는'이란 의미가 파악된다.

[15] 꺾- / 꺾점은조 꺾버랭이

〈꺾-〉은 '털'의 방언형 〈꺼럭〉에서 온 접두사로 보인다. 〈꺾점은조〉나 〈꺾버랭이〉에서 '털이 많은'이라는 의미가 파악되기 때문이다. 〈꺾점은조〉는 '이삭에 털이 많고 낱알은 검고 차진 조'를, 〈꺾버랭이〉는 '털이 많이 돋은 벌레'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6] 꿩- / 꿩배

〈꿩배〉는 '돌배'의 방언형이나, 표준어에서 처럼 '품질이 낮은'·'저절로 난 야생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꿩배〉의 {꿩-}은 '뻬'의 방언형 〈꿩〉에서 온 접두사로, '단단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19] 난- / 난드르 난캐

접두사 {난-}은 '나다(出)'에 어원적 근거를 두고 있다. <난드르³²⁾>·<난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이라는 의미가 파악된다. <난드르>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들'을, <난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들판'을 뜻한다.

[25] 놀- / 놀땅 놀혹

접두사 {놀-}은 {날-}의 방언형으로 표준어처럼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나(놀캐기 등), 여기서는 '물기가 있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접두사로 파악된다. <놀땅>은 '물기가 있어 축축하게 젖은 땅'을, <놀혹>은 '마르지 않고 축축한 기운이 있는 흙'을 말하기 때문이다.

[26] 다슴- / 다슴애기 다슴꼴 다슴어멍

이 접두사 {다슴-}은 문헌어 {다슴-}과 연결되어 주목된다. 기주연(1994)에 의하면³³⁾ "중세국어에서는 '다슴'이 명사로 쓰이던 말이다. 그러나 근대국어에서 '다슴'은 자립적 어기로 나타난 예를 확인할 수 없어 접두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 '뒤를 잇는'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 하여 '뒤를 잇는'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슴어멍> 등에서는 이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다슴애기>·<다슴꼴>에서는 '데리고 들어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뒤를 잇는'과 '데리고 들어온'의 뜻의 접두사로 설정해 둔다. <다슴애기>는 '전처의 자식이나, 후실이 데리고 온 전남편의 자식'을 말하기 때문이다.

[28] 댕- / 댕득

이 접두사 {댕-}은 중세국어에서부터 확인되는 접두사다.³⁴⁾ '크고 억센'의

32) 지명으로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를 뜻하기도 한다.

33) 기주연(1994), 앞의 책, p.77.

34) 기주연(1994), 앞의 책, p.77.

의미가 파악된다.

[31] 도- / 도나다 도치다

이 접두사 {도-}에서는 '다시'라는 의미가 파악된다. 어원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도나다>는 '수확한 뒤 씨가 떨어져 다시 나다'의 뜻이, <도치다>는 '식은 음식을 다시 열을 가하여 찌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34] 돛- / 돛자라 돛거미

이 접두사 {돛-}은 '돼지'의 방언형 <돛>에 어원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돼지의 검은 빛깔에서 연유하여 '빛깔이 검은'이란 의미가 파악된다.³⁵⁾

[35] 동궁- / 동궁아들 동궁똥

이 접두사는 '동궁(東宮)'에서 연유하고 있다. <동궁아들>·<동궁똥>은 '귀엽게 모시어 자란 아들·딸'이라 뜻이 있기 때문에 '귀엽게 자란'이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39] 든- / 든개

[19]에서 본 {난-}과는 대립적 의미가 파악되는 접두사다. <든개>가 '마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들판'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원적 근거는 '들다(入)'에 있다.

[40] 땅- / 땅개

사전³⁶⁾에는 '성질이나 특징의 정도가 아주 심한'의 뜻으로 올라 있다. 그러나 <땅개>는 '키가 작은 개'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키가 크지 않은'이라는

35) 강영봉(1993), 《제주도방언의 동물이름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p. 145.

36)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의미가 파악된다.

[41] 뚱- / 뚱강이

접두사 {뚱-}에서는 '질이 떨어지는', '먹을 수 없는'이라는 의미가 파악되어 {츄(참)-}가 대조를 이룬다.

[42] 뜬- / ①뜬채 ②뜬밭 뜬혹

접두사 {뜬-}에서는 ①에서 처럼 '행동이 느린'이라는 의미와 ②에서는 '찬기가 없어 부서부석한'이라는 의미가 파악된다. 각각 '뜨다'에 어원적 근거를 두고 있다. <뜬밭>은 '끈끈한 기운이 조금도 없는 부서부석한 흙으로 된 밭'을, <뜬혹>은 '찬 기운이 없는 부서부석한 흙'을 말한다.

[45] 말жат- / 말жат아들 말жат어멍

접두사 {말жат-}에서는 '셋째'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말жат아들>은 '셋째아들'을, <말жат어멍>은 '아버지의 셋째형의 아내이거나 셋째 아우의 아내'를 뜻하기 때문이다.

[48] 먹- / 먹돌³⁷⁾ 먹장의 먹보말

접두사 {먹-}은 '먹(墨)'에서 연유하는데, '검은색을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가 파악된다.

[55] 물- / 물웨 물떡 물왓

접두사 {물-}은 '물기가 많은', '물렁물렁한'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웨>는 '물외'를, <물떡>은 '송편보다 크고 기름하게 만든 물렁물렁한 떡'을, <물왓>은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피는 밭'을 말하기 때문이다.

[60] 불- / 불더위

37) '차돌'의 방언형으로 '단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접두사 {불-}은 '불(炎)'에 어원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불같이 뜨거운'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불더위>는 '불벌더위'를 말하기 때문이다.

[64] 셋- / 셋서방 셋길

접두사 {셋-}에는 '사이에 끼인'·'사이에 있는'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셋서방>이나 <셋길>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각각 '間夫·間路'가 되기 때문이다.

[66] 생이- / 생이빨망

이 접두사 {생이-}에는 '크기가 작은'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생이>는 '새'의 방언형으로, '작다(小)'의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68] 설- / 설배

<설배>는 '상여를 운반할 때 상여에 매어 앞으로 잡아당기는 바'를 말한다. 접두사 {설-}에 '서 있는·세워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서다'가 어원적 근거가 된다.

[69] 섭- / 섭팽이 섭늑물

<섭팽이>는 '불이 조금 넓은 팽이'를, <섭늑물>은 '잎이 넓은 배추'를 뜻하니, {섭-}에 '불이 넓은'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섭>은 '잎'의 방언형으로, 그 어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72] 셋- / 셋아방 셋어멍 셋아돌 셋상제

접두사 {셋-}에는 '둘째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셋어멍>은 '아버지의 둘째 형이나 아우의 아내'를, <셋아방>은 '아버지의 둘째 형이나 아우'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아돌>과 <셋상제>에서는 더욱 확연하게 그 뜻이 드러난다. 각각 '둘째 아들'과 '둘째 상주'를 말한다.

[73] 속- / 속돌

〈속들〉이 ‘단단하지 못하고 구멍이 솟솟 난 돌’을 뜻하고 있으니 접두사 {속-}에 ‘구멍이 솟솟 난’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속’이 그 어원적 근거다.

[75] 속- / 속쇄

이 {속-}은 [77]식-, [78]신- [80]속-과 같이 ‘검은’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식>은 ‘살쥬이’의 방언형인데, 색깔에 중점을 둔 결과 의존형인 접두사화한 것이다. 특히 {신-}은 중세국어에도 등장하는데 ‘검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예 : 신물).

[79] 실- / 실거리냥 실?메기

사전³⁸⁾에는 ‘가느다란·작은·얇은’이란 뜻의 접두사로 등재되어 있다. 제주도방언에서는 ‘가느다란’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실(絲)’에 어원적 근거를 두고 있다.

[81] 췌- / 췌군벗

이 접두사 {췌-}는 [55]물-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쓰인다. {물-}이 ‘물렁물렁’이라고 한다면 이 {췌-}는 ‘단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쇠’의 방언형이 <췌>이니, 이 어휘가 어원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82] 아끈- / 아끈췌기 아끈내 아끈다랑쉬

이 {아끈-}은 ‘작은’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끈(한-)과 짝이 되기 때문이다.

- ① 한내 : 아끈내
- ② 다랑쉬 : 아끈다랑쉬
- ③ 아끈췌기

38) 한글학회(1992), 앞의 책.

①은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내(III)의 이름이다. 내의 규모에 따라 큰내를 <한내>라 하고, 이와 전주어 규모가 작은 내를 <아끈내>라 부르고 있다. {한-}에서 '크다'의 뜻이 발견되는 것처럼, {아끈-}에서 '작다'의 의미가 파악된다.

②에서도 마찬가지다. ②는 북제주군 구좌읍에 있는 오름이름들인데, 두 오름이 서로 이웃해 있으나 크기가 다르다. <아끈다랑쉬>에 비해 <다랑쉬>가 더 크다. 문제는 <다랑쉬>에 {한-}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아끈다랑쉬>와는 서로 짝이 된다. 곧 '크다'와 '작다'이다. ③은 음력 7일과 22일의 무수기로 간단한 차가 거의 없다. 들고 나고의 차가 없다는 말과 같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간단한 차가 '작다'와도 같다. 우리들은 ①②③을 통하여 '작다'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

또 이 {아끈-}은 '작은·적은'의 뜻이 있는 근대국어의 접두사 {아츨-}에 비견할 수 있다.³⁹⁾

[93] 왕- / 왕들 왕방울 왕재열

'크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왕(王)'에 어원적 근거를 두고 있다.

[98] 장- / 장뽕 장푹

<장->은 '수-'의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물론 '수-'의 방언형 <수->도 있다. '수-'가 접두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수컷'을 뜻하는 접두사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원적 근거를 밝힐 수는 없다.

[101] 조- / 조쿠쟁이 조우럭

<조쿠쟁이>가 '작은 소리'를, <조우럭>은 '작은 우럭'을 뜻하니, '작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어원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105] 줄- / 줄삼치

39) 기주연(1994). 앞의 책, pp.83~84.

어원적 근거를 '줄(絲)'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줄이 그어진'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11] 좇- / 좇도새기

<좇도새기>가 '어미 젓을 먹는 어린 돼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좇-}에 '어린'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어원적 근거는 '젓'의 방언형 <좇>에서 찾을 수 있다.

[121] 풋- / 풋감 풋재열

<풋감>은 '아주 작은 감'을, <풋재열>은 '아주 작은 매미'를 뜻한다. {풋-}에 '아주 작은'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팥(小豆)'의 방언형 <풋>에서 그 어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4. 맺 음 말

제주도방언에서 쓰이는 접두사 133개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았다.

작성의 근거는 ①의존성 ②어기의 자립성 ③분리성 ④후속어의 제약성 ⑤대치 가능성 ⑥ 접미사 연결 가능성 그리고 ⑦ 의미의 변화성에 두었다. 이 7개의 근거에 다 들어맞는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작업에 따라 그 목록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133개 접두사 가운데 표준어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접두사가 89개나 되었다. 물론 개중에는 방언형이기 때문에 상이한 음성형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44개의 접두사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어원적 근거를 밝힐 수 없었던 것과 파생어의 유형·어기별 분류는 후일로 미룬다.